

강동균 교수의 글을 읽고

李曉箕*

오늘날 가까워진 지구사회의 격동하는 흐름을 응시할 때, 그 곳에서 허무하게도 마음의 커다란 空洞을 뼈아프게 느낍니다. 한 마디로 말씀하면, 그것은 생명의 존엄성을 상실해 버렸다는 데에 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스스로 포기해 버리고 말았다고나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여 이 순수한 생명을 지키면 좋을까, 그것을 모르게 되었다고나 말할 수 있을까. 이러한 차제에, 하나의 생명체를 바치시어, 모든 생명체를 영구히 구제하셨다는 정토의 진실한 가르침이, 이와 같은 俱會一處의 자리에서 부처님을 늘 섬기고 계시는 스님이나 신도, 그리고 학자들이 많이 모인 가운데서 논설·논의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하고도 참으로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토삼부경에서의 정토의 가르침은, 진실하게 사는 즐거움과 영원한 생명을 感得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너무 훌륭한 가르침이라고 감사의 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에 맞추어서 정토사상에 관한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주신 원효학연구원·분황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필자는, 「序論」에서 현대 한국불교에서는 선종 이외에는 불교가

아니라고 하여, 『아미타경』의 위상이 낮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논제가 필자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의미를 감안하면, 『아미타경』의 사상을 해명함으로써, 淨土思想을 명확하게 밝히면 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과연 『아미타경』만으로 어떻게 해서 정토사상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지 의심이 간다. 『阿彌陀經』 그 자체를 구명하더라도 정토삼부경 가운데 나머지 두 권 『大經』(『無量壽經』)과 『觀經』(『觀無量壽經』)을 시야에 두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실은 그 두 권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토삼부경이 따로따로 이루어져 각각 그 특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색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없었다고 본다. 근본적으로는 『小經』(『阿彌陀經』)도 『觀經』도 隱彰으로 볼 때는 『大經』의 여래의 本願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顯彰으로는 釋尊의 對告衆이 다르기 때문에 정토에 관한 가르침의 방법도 당연히 다르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大經』과 『觀經』을 생략한 『小經』은 성립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디까지가 『阿彌陀經』의 사상인가를 결정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 그러면 『아미타경』의 정토사상의 특색은 어디에 있다고 보지 않으면 안될 것인가. 먼저 대고종이 성문의 대표자이면서 지혜체일인 舍利弗이라는 것이다. 자리행만을 실행하고 사람을 구제하려고 하지 않는다. 불제자들은, 석존이 사리불을 상대로 말씀하신 것을 안다. 이것이 이 경의 하나의 특색이지만, 필자는 이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고 있다. 아무 말이 없이 염불하다가 정토에 가는 것이다. 84,000법문으로는 아미타불의 極樂世界에는 왕생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여래의 본원에 의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본원이

란, 제십팔원이며, 정도삼부경을 개설하게 된 이유는 이 본원성취에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아미타불의 極樂淨土에 왕생할 수가 있는가. 또 極樂이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아미타경」이 이루어진 근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고 있는가를 보기로 한다. 이것이 바로 이경의 특색이 될지도 모르겠다.

1. 「阿彌陀經」의 構造的 特性 : 그 구조적인 특성의 하나에 아미타불의 극락정토의 功德莊嚴의 의의는 그 정토에 왕생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大經」에 의하면 法藏菩薩의 五劫에 걸친 思惟의 결과 이루어진 불국토이며, 그 나라의 공덕장엄은 본원 즉 第十八願의 성취의 결과로서 일체중생이 구제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 衆生願生「俱會一處」와 六方의 恒河沙諸佛의 말씀을 구조적인 특색으로 들고 있다. 구회일처는 극락정토에 가면 많은 사람과 재회할 수 있으니 극락세계에 왕생하고 싶다고 원해야 할 것이라라는 것이다. 아미타불의 극락정토는 일체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本願力에 의하여 세워진 것이며 그것을 근거로 五濁惡世에서 일체중생을 위하여 아미타불의 難信法(念佛)을 말씀하시니 六方諸佛은 석존을 찬탄하셨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진실이며, 그것을 믿고 극락정토에 왕생하기를 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부처님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믿으라는 것이다. 여기서는 의심이 없는 믿음이 강하게 구해진다.

극락정토에 往生하고자 하면 미타의 본원을 믿어야 하지만, 本願의 根本은 믿음과 念佛이다. 필자는, 아미타경의 구조적 특성으로서 少善根不往生이라도 하루 내지 이레 동안 염불한다면 반드시 왕생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들고 있다.

2. 淨土思想의 의미: 정토사상의 의미로서 大乘의 意味와 정토사상의 두 가지의 흐름을 전개한다. 필자는, 여기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 필자에게 옳은 설명을 구하고자 한다. 논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당돌하게 느꼈다. 『阿彌陀經』의 淨土思想을 전개하는데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필자가 여기서 논술하려고 하는 바는, 4. 『阿彌陀經』의 信仰的意義를 논술한 마지막 부분으로서, '大乘佛教思想은 淨土思想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논증에 해당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필자의 의도를 참작하면 대승불교가 참으로 대승불교가 된다면, 단순히 자기의 성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체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一切衆生을 제도함으로써 자기의 성불이 완성되는 것이라야 대승불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거기에는 歸依三寶가 이루어져 있다고 봐야 한다.

필자는, 淨土思想에 두 가지의 흐름이라고 하지만, 정토를 건립하신 阿彌陀佛에 두 가지가 없듯이, 絕對他力の 정토만 있을 뿐이라고 본다. 다만 인간의 機의 입장에서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3. 『阿彌陀經』에서의 極樂과 衆生: 여기서는 앞에서 전개했지만 아직 분명하지 못했던 극락과 왕생에 대하여, 그리고 『阿彌陀經』이 이루어진 근본 이유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阿彌陀經』을 말씀하신 근본 의미, 근본사상을 필자가 어떻게 논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① 극락이란 이 경에서는 정신적인 괴로움이나 육체적인 괴로움

이 일체 없으니 극락이라고 하며 단지 거기에 있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쁨, 진실에 산다는 즐거움뿐이라고 한다. 필자가 어떻게 극락정토를 생각하고 있는지는 이해하지 못하였다. 元曉도 淨土와 穢土는 無二라고 하니 이것은 극락이 실재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어떠한 경우라도 樂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극락이라고 받아들여도 된다. 다시 말하면 緣起·空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극락이란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감득할 수 있는 데에 정토가 있다고 본다.

② 이 경에 설해지는 수행법도 『阿彌陀經』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모두 아미타의 진실을 표현하는 南無阿彌陀佛 가운데에 수용되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며, 정토에 새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미타가 새가 되어 불법이 깊고 깊은 것을 찬탄하여 불법의 진실에 살도록 하라고 권하는 설법인 것이다라고 필자가 말하는데, 극락이 나무아미타불 속에 살아있으며, 聞法念佛의 중요성과 아미타불의 현재설법으로부터 주변에서 들리는 어떤 소리라도 부처님의 설법으로 들을 수 있으면, 거기가 극락이라고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③ 필자가 阿彌陀의 無量光明의 지혜가 염불로써 우리들에게 주어진다고 하여 善導大師의 이 부분을 인용하고 있다. 지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미타불은 오로지 염불하는 사람만을 비추어서, 그 광명으로 攝取하며 버리는 일이 없다. 그러므로 저 부처를 아미타라고 이름한다.” 그리고 필자는 이어서 阿彌陀의 願은 念佛하려고 생각하는 마음에 의하여 중생에게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염불하려고 생각하는 마음 밖에 아미타가 있는 것이 아니다. 생각하는 마음

이야말로 아미타의 마음인 것이라라고 아미타불을 보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야 하고 생각한다. 그러면 염불하는 자에게 아미타가 있게 되며, 거기에 당연히 極樂淨土도 똑같이 있게 될 것이다. 염불 그 자체에 조건이 있을 것이다. 어떤 염불을 하는 곳에 아미타가 있을까. 이러한 아미타도 삼경에 공통된 아미타로 되어, 이 경의 특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六方諸佛의 說法은 믿음을 권함과 함께 아미타의 진실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부처들은, 자신이 부처가 된 것은 아미타의 보편의 법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나무아미타불의 진실을 증명하고 있다고 하며, 諸佛은 아미타의 법에서 제불인 것이 증명되고, 아미타는 제불의 증명에 의하여 아미타인 것이 명백하여지는 것이다. 즉 제불이란 아미타의 本願에 의하여 일으켜진 그리고 염불에 의해서 왕생한 사람들일 것이라고 필자는 논하고 있는데, 아주 깊은 통찰이라고 생각한다. 諸佛도 모두 다 難信中の 難法인데 스스로도 미타의 이 염불을 믿음으로써 諸佛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大乘佛敎가 바로 阿彌陀의 本願念佛에 대한 믿음에 의하여 一切衆生을 구제한다는 의미로서의 淨土思想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阿彌陀經」의 信仰의 意義: 여기서 필자는 “攝取不捨인 여래의 本願을 믿고 의지할 때에 거기에 본원의 의의는 뚜렷이 現前하는 것이며 정토왕생의 근거도 명시되어지는 것이다. 이상을 한 마디로 정리한다면 대승불교사상은 바로 정토사상일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끝맺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철학적인 고찰이며, 「大經」의 第十八願에 맞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결론 부분 마지막에 이 경의 목적은 이것을 읽거나 듣거나 한 사람

들이 아미타불을 믿고 그 이름을 마음에 두어 이 부처의 세계에 태어나고 싶다고 바라도록 하는 데에 있다라고 결론을 맺었다. 이것은 다른 『大經』이나 『觀經』에도 포섭되어 있는 것이나 이 경이 개설된 根本主旨라고 본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논증이 부족했다고 논자는 생각된다.

이 經은 처음부터 끝까지 執持名號, 見佛聞信聞法, 念佛往生에 대한 믿음을 설한 데에 있다고 본다. 석가모니부처님과 제불이 권하는 經名, 名號를 믿고 淨土往生을 원하는 것이다. 이 經이 설하는 極樂의 依正, 衆生往生의 因果를 상세하게 논구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왕생인과는 『阿彌陀經』의 淨土思想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외할 수 없다고 본다. 이 經이 설하는 念佛은 聲聞의 염불이라고도 한다. 自利밖에 모르고 利他가 보이지 않는 우리 중생에게는 까다로운 설명은 필요 없고, 그냥 석가모니부처님과 諸佛이 찬탄하시는 미타의 명호를 믿고 염불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이 經의 전체에 깔려 있는 것이다. 諸行의 少善根으로는 왕생하지 못하지만 執持名號, 一心不亂 즉 미타의 명호를 착실하게 마음에 간직하고 염불하면 꼭 왕생한다는 것이다. '執持名號'는 특히 중요하며 이 한 구를 가지고 이 『阿彌陀經』의 中心思想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 『阿彌陀經』은 『淨土三部經』중 다른 二經 즉 『無量壽經』과 『觀無量壽經』의 경론인 집지명호를 一經 全體의 서술로 하고 있다고 보는 학자도 있다. 이와 같이 본다면, 처음에 이 經의 중심용어인 '往生과 極樂'을 필자가 어떻게 정토사상에 자리매김을 하려고 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논평을 하려고 했으나, 이 중요한 부분—執持名號—을 단 한번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필자는 이것을 중요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阿彌陀經』의 淨土思想을 밝히려고 한다면, 여기서 역시 衆生往生의 因果를 언급하여 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